

공연업계, 김영란법 후폭풍에 '노심초사'

뮤지컬 등 티켓, 상한액인 5만원 넘어 기업구매 위축 우려



공연계 관계자는 '단체 티켓 판매가 끊겨서 기획사가 흔들린다는 건 개별 구매의 비중이 낮다는 걸 반증한다'며 '공연 시장이 건강하지 않은데 기업 단체 판매로 그때그때 수월해가며 겨우 버텨온 사실이 새삼 드러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위사진과 무관>

공연계가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후폭풍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뮤지컬, 클래식음악계의 고민이 많다. 대부분의 티켓 값이 선물 상한액인 5만원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문화 접대를 위해 티켓을 대량 구매할 기업들의 활동 위축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

◇뮤지컬 후시나, 클래식업계 전전긍긍
대형 뮤지컬 전체 객석에 대한 기업

구매량은 약 20% 인박으로 추정된다. 이미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앞선 몇몇 공연의 티켓에 대한 기업 구매량이 줄었다. 연말에 예정된 뮤지컬에 대한 기업에 대한 관심도 예년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연말 공연을 올릴 예정인 제작사 관계자는 "기업들이 김영란법을 이야기하며 예전보다 관심을 덜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마니아 층 등 개별 고객이 많은 뮤지컬은 그나마 낫다. 일반 관객이 적은 오

페라를 비롯한 클래식음악 업계는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클래식음악계는 유료 관객의 절반가량을 기업 협찬 등에 의존하고 있다. 오페라 제작사 관계자는 "기업이 티켓 구매에 몸을 사리면, 우리는 앞으로 제작을 더 해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가요 콘서트 시장 때문이다. 팬층이 확고해 뮤지컬이나 클래식음악보다 덜하다. 하지만 관계자들을 초대하는 것이 김영란법에 어긋날까, 위축되고 있다. 가을에 콘서트를 열 연에 기획사 관계자는 "그간 도움을 준 분들을 초대하는 것이 관례처럼 됐는데 이번에 난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업들 일단 지켜보겠다...결국 허약한 공연시장 체질
뮤지컬, 클래식음악 공연 제작사 관계자들은 애만 태우고 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명시되지 않은 탓에 기업들이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뮤지컬 제작사 관계자는 "다른 기획사와 공연장 등에 슬쩍 물어보듯 기업들이 협찬 등과 관련 명확한 입장을 주지 않고 있다"고 귀찮았다.

사회공헌 차원에서 공연 티켓 등을 대량 구매하고 있음에도 기업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티켓 자체가 자칫 유관 기관 등에 흘러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영란법은 개인이 아닌 법인의 개별 사례를 따져 저촉되는 건

없는지 유권해석을 해야 하는 터라, 어느 선까지 법에 저촉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공짜표 남발과 부정 청탁 등을 막는 긍정적인 부분을 애써 보고 있기는 하다. 특히 기업 내 문화 회식, 공연 제작사 등과 관련이 없는 선에서 개발로 진행되는 저렴한 문화 접대가 늘 거리는 기대다.

하지만 문화 회식은 사실상 빈도에 한계가 있고 저렴한 공연의 문화 접대 역시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무리한 낙관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2013년 국제청에 신고된 기업의 접대비 지출 금액은 9조원이 넘었는데 문화접대비 신고 금액은 고작 45억원에 불과했다.

비중으로 따지면 0.05% 이후에도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 문화예술 진흥 지원 등을 위해 도입한 문화접대비 제도가 유명무실했던 셈이다. 대형 뮤지컬 제작사 관계자는 "문화 접대에 한해서 선물 상한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공연계 우려는 허약한 문화 시장에 기반한 것이라는 분석력도 설득력이 크다. 공연계 전체로 티켓 판매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또 다른 위기 감이라는 것이다.

공연계 관계자는 "단체 티켓 판매가 끊겨서 기획사가 흔들린다는 건 개별 구매의 비중이 낮다는 걸 반증한다"며 "공연 시장이 건강하지 않은데 기업 단체 판매로 그때그때 수월해가며 겨우 버텨온 사실이 새삼 드러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뉴스



'물애 그리다' 김승호 작품전 26일까지

김승호 사진작가의 '물애 그리다' 작품전이 오는 6~26일까지 (제)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다. 김승호 작가는 주로 생태환경 중심의 사실적인 사진을 담는다.

<물애 그리다> 사진전은 이전의 그의 작품세계와 많이 다르다. 지금까지의 그의 작품이 있는 그대로의 사진을 사실적으로 담아가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번 전시는 남성적인 시각으로 비문 물의 다양한 이미지를 형상화한 서정성과 감성을 더했다.

'물'이라는 주제는 순수, 화합, 치유 그리고 강한 생명력을 의미한다.

이번 사진전에 대해 김승호 사진작가는 "물은 예술가에게 끊임없는 상상력을 이끌어내는 순수한 소재이며, 이번 전시에서는 물의 작은 움직임과 파장들이 주는 힘과 순수함을 관객들과 교감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오프닝 행사는 9일 오후 5시 한국전통문화전당 3층 기획전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통문화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사항은 281-1514. /정해은 기자

문체부, 시티투어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5일 시티투어의 출현을 앞당기고자 전국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개최한다.

이날 전국 7개 시티투어 운영 지자체 담당자와 사업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해 시티투어를 매력 있는 관광콘텐츠로 만들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김철원 경희대 컨벤션경영학과 교수가 국내의 특색 있는 시티투어 사례, 춘천과 전라남도 등의 지자체가 우수 시티투어 운영 사례 등도 소개한다.

현재 전국에는 7개 지자체 총 308개 노선의 시티투어가 운영되고 있다. 일정 시간 간격으로 노선버스처럼 운영되는 '순환형'과 지역의 관광지를 해설사와 함께 순회하는 '데마형' 버스 등이다.

그러나 지자체 간 운영 형태가 대동소이하고, 지역 관광소재를 살린 체험 등 매력요소가 적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자체 시티투어 지원 정책 방향을 앞선 노선 확대보다 질적 다양화 육성 정책으로 전환 방침이다. 문체부는 지자체 시티투어 중 주제성과 관광객의 체류요소 등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성 높은 프로그램 개발을 선정, 기획·홍보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뉴스

'뽕박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 신세계로의 선물

나운규 탄생 90주년 기념 국립민속국악원 '아리랑' 창극으로 제작

나운규(1902~1937년)는 시나리오·각색·편집과 감독·주연까지 다방면에 능한 영화인이었다.

1924년 연기자로 영화계에 발을 디딘 그는 이듬해 주연 배우로 발탁되었고, 1926년 22살의 나이에는 영화<아리랑> 제작자로써도 성공하며 화려한 인생을 살아간다. 영화도 탄탄대로를 달리던 6개월에 걸쳐 전국 방방곡곡에 상영된다.

나운규는 아리랑 이후 활발한 영화 활동을 이어가지만, 예술영화 제작의 후유증으로 인해 재정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종국에는 쇠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젊은 나이에 요절한다.

일제 강점기 시절을 배경으로 한 영화<아리랑>은 민족의 저항과 역경 그리고 의지를 영상에 담아냄으로써 고단한 삶을 일궈가는 아들에게 '뽕박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이라는 신세계를 선물했다. 이와 함께 배경음악으로 쓰인 전래 민요<아리랑>은 노래하고 나지막이 읊조리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안기며 민족의 숨통을 열어 주었다.

이러한 가치로 인해 '아리랑'은 한민족의 상징적인 단어가 되었다.

올해로 탄생 90주년을 맞은 영화<아리랑>의 열과 나운규에 경의를 표하고자 국립민속국악원은 이를 창극으로 제작, 지난 1일 시연회를 열었다. 이는 영화인 나운규의 삶과 그의 작품 아리랑을 창극에 투영해 낸다.

작품은 이종우조로 1928년도의 아리랑작품이 창극으로 개작돼 무대에서 공연되는 상황과 이 창극의 번사 역할을 맡아 이야기기를 이끌어 가며 현대를 살아가는 창극 배우 나운규의 삶이 그려진다.

극중 창극배우 천상민이 친구 나운규를 찾아와 우수 공연지원에서 탈락한 이유를 묻는다. 이에 나운규는 작품을 쓰고 있으니 걱정 말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한다.

그러자 상민은 "현재 적 아리랑이냐? 10년째다"라며 "이제는 새로운 작품을 선보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동료 박 선생도 밀린 출연료를 요구한다. "우린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다



창극 나운규 아리랑은 남원에서 초연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대전, 서울에서 공연된다

있는 놈들이 더한다"며 그를 물이춘다.

이에 창극배우 나운규는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하며 절규한다. 이는 시대를 막론한 예술가들의 공통된 외침이 아닐런지 모르겠다.

창극에는 수십 번씩 계단을 오르내리며 안식의 의자로 향해가는 나운규의 고달픈 삶이 묻어낸다. 또 설사 그곳에 다다르더라도 두 줄에 매달린 위태위태한 그네의자만이 그를 기다릴 뿐이다.

나운규 아리랑은 창극으로서의 대중적

인 시도는 좋았으나 극의 내용을 단박에 이해하기는 다소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또한 의자에서 단원들이 추는 군무와 나운규가 방랑한 일상을 연기하는 장면은 뮤지컬 시카고를, 나운규의 장례식에 등장하는 단원들의 우산 군무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

창극 나운규 아리랑은 2~4일 남원에서 초연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대전, 서울에서 공연된다. /정해은 기자

마켓, XBOX 게임 신작 4개 타이틀 독점 판매

마켓이 하반기 출시 예정인 마이크로소프트 XBOX 신작 4개 타이틀을 독점 예약 판매한다.

마켓이 단독으로 예약 판매하는 타이틀은 '리코어 (Recore)', '포르자 호라이즌 3', '기어스 오브 워 4', '데드 라이징 4' 등이다.

먼저 2일부터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 '리코어'를 3만8800원에 판매한다. 한정판 콘솔 패키지는 30개 한정수량으로 39만 9000원에 예약 판매한다.

19일부터는 '포르자 호라이즌 3'를 예약 판매한다. 일반판과 한정판을 각각 5만8800원, 9만8800원에 선보일 예정이다.

30일에는 '기어스 오브 워 4'를 5만8800원(한정판 11만8800원)에, 11월에는 '데드라이징 4'를 5만8800원에 예약 판매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특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http://www.phislab.com/>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9월 5일>

<p>▷쥐띠 46년생: 고민되는 것이 있다면 타인과 상의하라. 60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복병으로 고민할 일이 생긴다. 72년생: 혼자 고군분투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운이다. 84년생: 일시적인 감정으로 움직이면 손해나 지중하라.</p>	<p>▷소띠 49년생: 큰 움직임이 피한다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61년생: 매사에 주의하면 결과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73년생: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이다. 85년생: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p>	<p>▷호랑이띠 50년생: 매사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운. 62년생: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곤두사지 되는 운이니 주의하라. 74년생: 차근차근 하나씩 이루어 나가야 하는 운이다. 86년생: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참고 인내하면 좋은 기회.</p>	<p>▷토끼띠 51년생: 긍정적인 마인드를 잃지 않으면 좋은 상행. 63년생: 손재수가 있는 운. 75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진전이 있으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운이다. 87년생: 자신만의 이득을 생각한다면 사람을 잃게 될 운이니 주의하라.</p>
<p>▷용띠 52년생: 성급하게 판단하여 행동하면 후회. 64년생: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면 좋은 결실. 76년생: 주위의 질투로 인해 구설이 발생하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88년생: 뒷 사람의 인정을 받는 운이니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고 열심히 전진하라.</p>	<p>▷뱀띠 53년생: 계획의 변동, 변화는 실수를 불러오니 주의하라. 65년생: 결과는 좋다. 당차게 행동하면 상대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77년생: 여자는 남성의 도움을 받으면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 89년생: 늦은 오후에는 운이 막히게 되니 부지런히 움직여라.</p>	<p>▷말띠 54년생: 큰 변화나 욕심은 금물이다. 66년생: 말과 행동에 주의를 요하는 운. 78년생: 타인과의 화합에 좋은 날이다. 동기화 및 약속을 만드는 것도 좋겠다. 90년생: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실패수가 따르는 운이니 주의하라.</p>	<p>▷양띠 55년생: 매사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67년생: 망설이던 기회를 놓치게 되는 운이니 주의하라. 79년생: 혼자 해결해 나가면 결실이 있을 것이다. 91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활기탈부 하다가는 시비수.</p>
<p>▷원숭이띠 55년생: 좋은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 급히 먹은 음식에 제하는 것이니 주의하라. 69년생: 사리에 치우쳐 행동하면 화가 따르니 조심하라. 81년생: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을 조심하라. 대가없이 주는 사람이 아니다. 93년생: 동기화으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는 운.</p>	<p>▷닭띠 57년생: 나이갈 때와 물라실 때를 구분하라. 69년생: 큰 움직임은 좋지 않으니 주의하라. 아프거나 다칠 수 있겠다. 81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꼼꼼하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93년생: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참작하면 좋은 결실.</p>	<p>▷개띠 48년생: 정신적으로 소모가 심한 운이니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다. 60년생: 뒷일을 생각하며 행동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겠다. 72년생: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84년생: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든 운이다. 무리는 금물.</p>	<p>▷돼지띠 47년생: 정신적으로 맑지 않으니 실수를 주의하라. 59년생: 타인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운. 71년생: 결의 모습보다는 내실에 치중하는 것이 좋은 운이다. 83년생: 다른 사람과의 의견충돌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는 운이니 주의하라.</p>